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 공동 연수

전북·강원·세종·전남 4개 시·도 집필진, 편집·디자인·삽화·윤문 등 편집절차 협의 예정

역사보조교재 개발을 위해 전북 강원 세종 전남 4개 시·도 집필진 위원과 업무담당자들이 공동연수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 2월 말 광주에서 1박 2일의 8차 연수를 진행한 뒤 두 달 만이다.

광주 워크숍 이후 중·고별, 시대별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인쇄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지난 28일, 29일, 이들 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집필진이 검토한 원고를 토대로 편집·출판 작업을 위한 협의과정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집필위원들은 편집과 디자인 삽화, 윤문 등의 본격적인 일정과 편집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행사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공개입찰 심사과정을 거쳐 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제작 보급할 인쇄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교 한국사의 6개 시대별 86주제에 대해 편집 틀과 사진배치 및 디자인 방향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보조교재를 꾸미는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또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 소위원회도 편집 체제를 갖추고 9개 단원에서 추출한 43주제의 내용에 대해 초안을 완성한 뒤 5월 말 이후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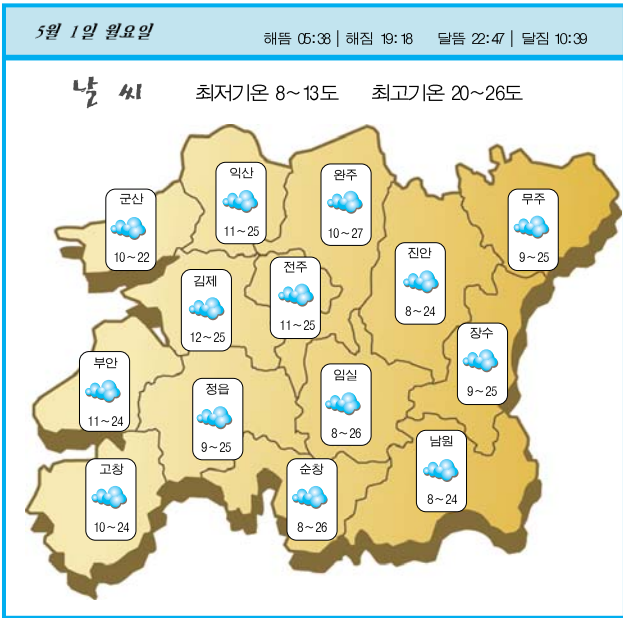
한편 4개 시도가 개발하는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는 중앙사 중심의 역사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시도의 지역사를 반영하고 민주와 인권, 평화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균형있는 교재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직후 역

사교과서 보조교재 제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이와 뜻을 같이 한 강원, 광주,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해 3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개발 및 사용승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35명으로 구성된 집필진들은 현재까지 약 1년 여 기간 동안 9차례의 공동연수와 60여 차례의 시대별 개발 자료를 통해 집필에 몰두해 왔으며 개발한 자료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적용되는 2018학년도 2월에 보내 온 중·고등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전주시는 28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최성일, 김인수, 김진중, 강갑석 씨 등 한지장인 4명에게 전주한지장(韓紙匠)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 잇는다

시, 한지장인 4명 전주한지장 지정서·현판 전달 한지장 홍보·후계자 교육 지원 검토

전주시가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을 잇기 위해 한지장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28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최성일 김인수, 김진중 강갑석 씨 등 한지장인 4명에게 전주한지장(韓紙匠)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전통한지의 계승·발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전주한지장을 선정했으며, 국내에서 자

체적으로 한지장인 선정·지원에 나선 지정서는 전주시가 처음이다.

이날 시는 전주한지장 4인에게 한지장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전통한지 보존 및 전승에 대한 장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앞으로 한지장 지원을 위해 한지장 홍보와 후계자 교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

는 등 전주 전통한지 보존 및 계승을 위한 한지장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힘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 전통한지 문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조례도 제정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 전통한지가 꾸준히 계승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전주시가 국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어린이날주간 특별행사개최

〈3일부터 7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은 징검다리 황금연휴를 맞아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2017 어린이날 주간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바탕 박물관 놀이마당'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 극장에서는 '남비 슈퍼밴드', '아기배달부 스토리' 영화가 상영된다.

또한 전통놀이체험, 스토리게임, 퍼즐맞추기, 보드게임 등의 브레인 놀이, 인도 특별전 연계 퍼즐놀이, 심잉볼 명상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와함께 전라간사와 육방아속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특별행사로 어린이극장에서는 '슈퍼밴드'가 상영되고, 특별공연 어린이인형극 '책먹는 여우', 덩더쿵 풍물놀이, 미술&버블쇼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놀이체험으로는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나누기, 버블버블 비눗방울 불기, 미니언즈와 함께 사진찍기, 박물관 보물찾기가 진행되고 만들기체험으로 바람개비 만들기, 달피피 기념 비누 만들기 준비돼 있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전주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문화행사로 어린이들이 희망을 꿈꾸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표현의 자유' 청춘의 시각으로 논하다

현직 기자도 참여해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 주제로 지난 2월 학생의 시각에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담아낸 책을 펴낸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유령의 도시'를 래스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전주국제영화제 프론트라이너 색션에서 상영된 '유령의 도시'를 관람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강병원 영화제 프로그래머와 하인호 JTV전주방송 기자가 패널로 참석한 '유령의 도시' (감독 매튜 하인만)는 2014년 무장테러단체 IS에 마을을 점령당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 확장된 의미의 인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석희 공공인재부학생이 자신들이 쓴 '영화 속 표현의 자유'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했고 강병원 프로그래머와 하인호 기자의 책에 대한 평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소 생각을 학생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전했다.

이어 공공인재부학생들의 영화에 대한 소감과 질문을 했고 두 패널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시간이 진행됐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박기봉 박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우수구연상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박기봉 박사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박 박사는 'Cobaltometric Analysis of Pediatric Zirconia Anterior Crowns'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은 보철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기성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여러 색조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색조 분석을 통해 기존 유전치와 최대한 가까운 색조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미 보철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 평가됐다.

박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가 유전치와 자연스럽게 심미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 24. (토) - 30. (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n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